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

최원석**

Fengshui's Interaction with Buddhism in Korea *

Won Suk Choi**

요약 : 이 연구는 한국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이 언제 시작되었고 정치주도세력에 의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 및 풍수와 불교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한 글이다. 역사상에서 풍수와 불교는 융합적인 문화형태로 교섭되어 사찰의 입지 및 기능, 사회·공간적 이데올로기의 형성, 풍수의 도입 및 확산, 비보사탑설의 전개 등에서 영향을 주었다. 풍수와 불교는 신라 하대에 선종의 전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고, 나말려초에는 사회변혁을 이끄는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으며, 고려시대를 걸쳐서는 왕권의 중앙집중 및 지방의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정치지배권에서의 불교와 풍수의 교섭은 쇠퇴되고 민간부분에서만 미약하게 유지되었다.

주요어 : 풍수, 불교, 선종, 비보사탑설, 사찰입지, 사찰택지

Abstract : In Korean history, Fengshui and Buddhism were closely connected in a harmonious and interrelated manner, together influencing the location and function of Buddhist temples, the forming of social and spatial ideologies, the spread of Fengshui, the development of Buddhist Bibo-Fengshui, etc. The interaction between Fengshui and Buddhism, which began after the introduction of Zen Buddhism in the late-Silla period, acted as a spatial ideology that empowered the powerful local gentries to trigger a social upheaval in the late-Silla period and was used by the government leaders for political purposes throughout the Goryeo period. In the Joseon period, the link between Buddhism and Fengshui weakened and was felt only at a grass-roots level.

Key Words : Fengshui, Buddhism, Zen Buddhism, Bibosatap Theory, Location of Temples, Placement of Temples

1.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의 역사상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정치지배층 및 문화주도집단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형성·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사회 및 풍수와 불교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한 글이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풍수와 불교는 서로 긴밀히 교섭하여 역사상에 독특한 사상, 문화와 경관을 형성하였다. 풍수와 불교가 만나 사상적으로 地力思想과 佛力信仰이 결합하였으며, 자연과 마음의 만남의 미학을 창출하였다. 한국의 역사에서 풍수와 불교는 깊은 관계를 맺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한국풍수설의 시조가 승려 道詵(827-898)이라는 역사적 인식도 그러하고, 대다수의 옛 불교 사찰은 풍수적 입지경관

* 본고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2007년 10월에 개최한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영문 발표내용을 국문으로 바꾸고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학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schoe@empal.com

을 보여주며, 특히 고려시대에서 풍수와 불교는 결합되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민간에서는 풍수와 불교적 요소가 결합된 설화가 많이 만들어졌다. 한편 중국에서도 풍수와 불교의 관계는 밀접하였는데, 선불교 사찰의 입지, 풍수의 확산 및 전파, 불교 건축 및 공간배치 등에 상호 영향을 미쳤다.¹⁾

한국의 역사상에서 풍수와 불교가 교섭되면서 끼친 정치 및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역사학, 지리학, 불교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한 것을 들자면, 나말려초 풍수설의 사회적 성격 및 풍수설의 전래와 유포에 미친 불교적 영향(최병현, 1975), 선종 사찰터의 입지에 미친 풍수의 영향(조성호·성동환, 2000), 고려시대 비보사찰의 성립과 운용과정에 관한 고찰(한기문, 2006), 풍수와 불교의 교섭에 관한 해석들을 전문가(풍수승)·경관(풍수 관련 사찰)·세계관 및 윤리적 가치(자비)로 설정하여 연구한 논문(윤홍기, 2006) 등이 있었다. 하지만 通時的으로 둘(풍수·불교)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관계와 상호 작용 및 영향에 관해 밝힌 학술적 논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의 몇 가지 주제를 연구의 의의와 목표로 삼고자 한다. 첫째, 풍수와 불교 교섭사의 시기구분 및 전개과정의 특징과 한·중·일에서의 풍수와 불교 교섭의 기원을 살펴본다. 둘째, 나말려초의 사회정치적 주도집단에 의한 비보사찰설의 형성과 공간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고찰한다. 셋째, 풍수의 도입 및 공간적 확산에 미친 불교의 영향과, 사찰의 입지 및 사회문화적 기능에 미친 풍수의 영향에 관하여 논구한다.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사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대략 구분이 가능하다.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걸치는 성립기로서, 선종의 유입과 함께 풍수와 불교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풍수와 불교는 상호 교섭의 과정에서 경합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협조적이고 상보적인 교섭 양상을 보였다. 불교는 풍수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풍수는 사찰의 입지와 사찰터 택지 방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풍수와 불교가 결합하여 비보사찰설이

형성되었다. 비보사상은 나말려초의 전환기에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사상적 추진력으로 기능하였다.

고려시대에 걸친 흥성기로서, 고려사회의 지배층에게 강력한 공간적·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풍수와 불교가 국가의 정치주도 세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된 시기이다. 풍수와 불교는 제도권 내에서 지배문화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서로 공고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 조정은 비보설을 국토공간의 통합적 운용 원리로 입각하여 수도와 지방에 비보사찰을 설치·관리하였고, 풍수와 불교를 결합한 국가적 의례로서 地理延基裨補를 실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쇠퇴기로서, 조선 왕조의 역불 정책에 의해 불교는 억압되었고 풍수 역시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하여 견제되었다. 조선조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지배로 말미암아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급격히 위축되어 쇠퇴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만 음성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名僧에 假託한 풍수도참서와 비결서, 민간설화 등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비공식적이고 은폐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논지를 기초로 하여 이 글의 구성은, 풍수와 불교 교섭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풍수와 불교의 교섭으로 인한 상호 영향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전자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풍수와 불교가 교섭한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풍수와 불교의 교섭을 담당한 사회 집단은 누구이고 그 계기는 무엇이며,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전환기의 신라사회에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탐구될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풍수의 확산 과정에 불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풍수는 불교의 사찰입지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사찰의 성격 및 기능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논구될 것이다.

2. 풍수와 불교 교섭의 기원과 전개

1) 한중일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최초에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중국에서 사찰의 입지와 관련하여 일찍 시작되었고,²⁾ 시기적으로는 불교와

표 1. 한국 풍수·불교 交涉史의 시기구분 및 특징

시기구분	시대	부문	특징
성립기	신라 하대 ~ 고려 초	선종과 풍수	선종의 유입으로 인한 풍수와의 교섭
		사회사상	비보풍수설의 사회·공간적 이데올로기 형성
		사찰 입지 및 택지법	사찰의 풍수적 택지 및 입지
흥성기	고려	국토 계획	비보사찰의 배치 혹은 국토비보 성행
		사·탑 양식	비보사찰·비보탑 생성
		신앙사상	地力思想과 佛力信仰의 결합
		의례	地理延基禱補
쇠퇴기	조선	전문가	풍수 전문 승려 집단의 형성 및 관직 부여
		민간 문학	풍수승 관련 설화 및 秘記類 형성

풍수가 흥했던 唐代(618-907)에 교섭이 가장 활발하였다. 한국에는 9세기 신라 하대에 선불교가 중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래되자 이에 부수되어 풍수도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8세기 말 중앙지배층에서는 사찰지의 왕릉지 이용을 둘러싸고 풍수와 불교의 문화경합 양상도 벌어졌으며, 9세기가 되자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협조적이고 상보적인 양상을 띠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시기적으로 훨씬 나중인 13세기에 들어와서야 중국의 선종이 전파되면서 풍수와 선불교의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4세기의 문헌에서는 사탑의 풍수적 입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唐代에서는 유명한 풍수 전문승들도 배출되었고, 특히 선종의 흥성과 결부되어 풍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선종 사찰지의 선택에 풍수가 깊이 간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국에서 온 유학승들에게 그대로 전수됨으로써 그들이 귀국한 후에 한국의 선종 사찰 입지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중국의 경우, 풍수는 한대에 틀을 이루고 당대에 성숙하다가 송대에 이르러 절정기에 도달하였지만(何曉昕·羅薦, 1995, 126),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당대에 가장 성하였다. 당대의 유명한 승려 겸 풍수 전문가로는 一行(673-727), 浮屠泓(泓師) 등이 있었다. 특히 一行은 당대의 고승으로 그의 山河兩界說은 후세 풍수인들의 界水理論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당

玄宗의 칙명으로 풍수경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郭璞의『錦囊經』을 僧 泓師 등과 주석하였다. 송대를 거쳐 명대에는 目講僧과 非幻和尚이 풍수승으로 유명하였는데, 非幻和尚은 왕의 부름을 받아 창평 天壽山의 왕릉지를 선택한 장본인으로 알려진다(高友謙, 1992, 195-196, 201-202). 이렇듯 중국에서는 사찰의 입지에 풍수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승려가 왕릉지의 선정에 참여하는 등 국가의 공식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풍수경전의 주석을 통하여 풍수지식의 이론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다음 풍수지리설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삼국시대 말기에는 왕실이나 국도중심의 지배세력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불교의 흥성에 비례하여 풍수지리설도 상당히 유포되었다. 신라에서 불교가 주로 지배세력과 밀착되어 경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부수되어 전래된 풍수지리설도 왕궁이나 왕릉 및 지배세력과 연결된 사찰의 基地 선정 등 경주 국도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최병현, 1975, 129-130). 문헌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백제 武王 3년(602)에 觀勒이 曆書 및 天文地理書를 일본에 가지고 가서 그곳의 僧正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그 천문지리서가 풍수지리서인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위 내용은 백제와 일본의 문화교류를 증언할 뿐 풍수와 불교의 교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삼국유사』

권3「황룡사구층탑」조에는 7세기 경 신라인들의 풍수와 불교 교섭의 초기적 인식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대목이 있는데, 산천의 흉한 형세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³⁾ 이렇게 산천의 형세에 대한 길흉이라는 풍수적 견지의 파악과 그 대처 방법으로서의 佛塔의 활용이라는 사유의 단초는 이후 나말려초에 비보사탑설의 공간적 정립 및 정치주도세력에 의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활용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최치원의 「大嵩福寺碑銘」에는 8세기 말 신라왕실의 왕릉지 선정을 둘러싸고 풍수와 불교가 문화경합의 양상이 벌어지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이 비문에는, 元聖王陵의 舊址인 鶴寺 터가 풍수적 길지로서 元聖王(785-798)의 왕릉지로 쓰자는 의견이 조정에 대두되어, 불교의 사찰기능과 풍수적 왕릉의 효용성을 두고 군신 간에 논란이 일어 경쟁하다가 마침내는 풍수적 이용으로 실행된다는 역사적 기록을 적고 있는데,⁴⁾ 이러한 사실은 8세기 말에 세력이 伸張하는 문화요소인 풍수가 기존의 지배적 문화요소인 불교와 경합하다가 채택되어 수용되는 교섭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비문에 의거하면 8세기 말 이전에는 이미 鶴寺가 풍수적 길지에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최초로 鶴寺址가 풍수적 견지로 택지되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풍수적 입지와 합치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미 600년에 백제 法王이 짓기 시작한 王興寺 터의 입지형태가 배산임수(附山臨水)⁵⁾의 풍수적 경관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나, 원효(617-686)와 의상(625-702)이 창건한 사찰들 그리고 다수의 교종계 사찰들이 풍수적 입지와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7세기 초의 삼국시대 말기에 사찰입지를 둘러싼 풍수와 불교의 교섭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겠다. 더 소급하여 보자면, 풍수와 불교 교섭의 始原을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4세기 무렵까지도 역추할 수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풍수가 발생하여 불교와 교섭하였기에, 불교의 전파에 부수되어 풍수가 한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풍수적 지식 및 관념이 도입된 시기와 풍수가 공간적 입지론으로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사찰의 입지에 실천된 시기는 격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

국에서 풍수가 불교와 교섭하면서 지방호족의 세력을 배경으로 널리 확산되고 실천되는 계기는 신라 하대 선불교의 전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한편, 일본에는 가마쿠라(鎌倉: 1192-1333)시대부터 도쿠가와(徳川) 초기에 걸쳐 중국에 유학한 일본의 승려들과 중국에서 일본에 들어온 승려들에 의해 중국의 선종이 도입되었으며(西村惠信, 2006, 132-133), 14세기에는 불교 사탑의 설치에 풍수가 간여하는 대목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풍수와 불교의 교섭 시기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원각사문서」(1354)에 의하면, 불탑의 건립과 관련하여 풍수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본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風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최초의 문헌이라고 한다(渡邊欣雄, 2006, 8).⁶⁾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의 풍수와 불교의 교섭 정도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약하였다.

2) 선불교와 풍수의 교섭

6세기 초 달마에 의해 최초 중국에 전래된 선불교는 7, 8세기에 이르자 이미 중국사회에 성행되고 있었던 풍수와 우호적인 형태의 교섭을 본격화하여, 선종 사찰의 풍수적 입지가 널리 시행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에 의해 9세기경부터 선종 사찰의 풍수적 입지가 생겨나고 이에 부수되어 지식인과 지방호족세력들에게 풍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역사에서 선불교와 풍수의 만남은 문헌에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선불교 사찰의 입지 경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의하면, 六祖 慧能(638-713)이 조계산에서 南宗 禪門을 개창할 때 陳亞仙이라는 사람의 풍수설을 좇아서 寶林寺 터를 선정하였다고 하고, 「江西通志」에 의하면, 司馬頭陀는 일찍이 풍수를 학습하여 洪都(지금의南昌)의 여러 산을 답사하였으며 百丈禪師와 만나 사찰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高友謙, 1992, 196). 특히 馬祖(709-788) 법맥의 禪刹 입지에 풍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중국 현지 사찰의 답사를 통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조 법맥의 사찰이

집중하여 있는 강서 지방은 당시 풍수 兩大 이론의 일파인 형세론이 매우 성행한 지역으로서, 그 영향으로 많은 선종 사찰들이 풍수적 입지를 하였다.⁷⁾ 이렇듯 선불교와 풍수의 활발한 교섭은 선종사찰의 풍수적 입지경관으로 구현되었고, 강서 지역을 선불교와 풍수 교섭의 확산과 전파에 있어 문화핵심지로 하는 문화지역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중국의 사정이 이러하니 중국에서 선불교를 받아들였던 신라 하대 선종 사찰들의 정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九山禪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선종사찰들은 대부분 풍수적인 입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산 선문을 개창한 승려들의 대부분이 중국에 유학하여, 당시 풍수가 유행하고 있었던 강서 지방의 마조선 법맥을 받아 왔다는데 그 분명한 연유가 되는 것이다. 문헌과 탐비문으로 증빙해 보더라도 도선(827-898)의 풍수에 관한 행적이나,⁸⁾ 선승들이 선문을 개창할 때 풍수에 따라 사찰의 자리를 선정하고 부도지 선정에 풍수가 활용된 여러 정황들이 있다(최병현, 1975, 133-138). 이렇듯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선불교의 기원적인 교섭은 문화전파의 속성을 보이며,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걸쳐 선종 사찰들의 공간적 확산에 수반하여 지방으로 산포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과연 신라 하대에 풍수와 선불교가 서로 교섭될 수 있었던 소지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선종은 지방호족세력의 정치적 지원을 업고 교종의 지배적 권위에 대항하는 新思想으로 출발하였기에, 왕족 및 귀족의 정치적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범위인 왕도 경주나 대도회 보다는 지방의 외곽 및 주변 산간에 처음 사찰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기존의 佛靈地 혹은 簡子를 활용해 택지하는 방식에 비해 산천의 지형형세를 파악하는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풍수입지론은 선종 사찰지의 선택에 영향력 있는 지식정보가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신라 하대에 풍수는, 기존에 경주가 중심이 된 靈地觀 및 佛國土地理觀과는 달리 지방도 풍수이론에 합당한 지역은 중심지로 될 수 있다는 사회변혁적 공간사상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말기의 정치적 혼란기에 선종사상과 함께 지방 호족집단에게 강력한 매력을 끌 수 있었다. 그리고 선종 자체가 자연산천의 실재와 질서를 있는 그대로

로 파악하고 긍정하는 사상성이 있는 것이나, 산간에서 참선을 위주로 하는 修道 방식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자연입지조건을 갖춘 장소 선택의 필요성도 풍수와 교섭하게 된 실제적 배경 요인이 되었다.

신라 말의 선승인 도선(827-898)은 신라 왕조가 몰락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태동기에 불교와 풍수라는 두 사상을 결합하여 사탑비보설이라는 새로운 사회사상을 창안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한 전환기의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풍수와 불교의 만남에 있어 정점에서 있는 인물이다. 도선의 국토사상 및 공간이론은 裨補說로 요약되는데, 그는 寺·塔이라는 불교적인 수단을 통해 풍수적인 裨補를 꾀하는 소위 裨補寺塔說을 실현한 인물로 역사에 알려져 있다. 이 비보설은 고려조 오백여년을 걸쳐 사찰의 입지 및 배치원리와 정치사회적 공간 이데올로기로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의 인물사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 과정은 신라 하대 구산선문의 선승들에서 비롯하여 도선이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정점을 이루고, 한국의 문화사와 사상사에 독특한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와 고려 말의 太古 普愚(1301-1382)에 이어 조선 초기의 無學 自超(1327-1405)에게 계승된다.

3) 사회변혁적 공간 이데올로기의 형성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걸쳐 풍수는 선불교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간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두 신진 문화요소가 변혁주체세력에 의해 교섭되는 과정에서 문화변동이 유발된 것이다. 그 역사적 형태인 비보사상 및 비보사탑설은 전래의 사탑 鎮護 신앙과 밀교 및 선불교의 공간관, 그리고 풍수지리설 등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기존에 왕족 및 중앙귀족과 교종세력에게서 견지되어왔던 경주 왕도 중심의 낡고 편협한 공간관념의 틀을 깨는 지역 균형발전론의 정치지리적인 인식틀이라는 데에 중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교종에 대한 선종의 혁명적인 불교적 실천이자 사고방식과도 비견될 만하였다.

신라의 불교적 이상향으로서의 불국토 혹은 극락정토는 공간적으로 왕도인 경주에 한정된 영역이었고, 이상사회인 佛國의 주인공은 왕족 및 중앙귀족의 계층

에 국한될 뿐이었다. 신라 경주의 지배층들은 불국토의 세계상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불교의 우주공간을 경주에 상징적으로 대응시켜 일체화하고자 했고,⁹⁾ 경주 왕도의 곳곳에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사찰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엄 교종의 주요 사찰들을 왕도를 중심으로 한 외곽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배치시켜 왕도를 수호하는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토함산 불국사, 계룡산 갑사, 지리산 화엄사, 태백산 부석사, 팔공산 미리사 등 국가의 주요 화엄사찰들이 자라잡고 있는 곳은 각각 동·서·남·북·중의 五岳으로서 이들 명산은 신라영토의 요충지이자 국가적 산악 신앙이 시행된 중요 명산들이었다. 이렇듯 신라 지배층의 공간적 이데올로기는 경주중심의 왕도발전론이었던 것이다(최원석, 2004, 91).

그러나 신라 말기인 9세기 무렵의 사회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정권쟁탈로 인해 지배층들은 반목·이반하였고, 백성들은 기근과 도탄에 빠져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지방의 호족세력들은 중앙귀족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는 변혁사상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변혁의 주체세력을 지원하여 왕족과 귀족들의 경주에 한정된 왕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사상의 탄생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불교와 풍수의 교섭으로 창출된 비보사상은 지방호족세력의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변혁적 공간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신라 하대에 지방의 호족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은 선불교와 풍수사상을 전환기 사회를 이끄는 사상적 동력으로 재해석하였다. 선종의 인간관은 기존 교종의 권위적이고 허식적인 의례를 지양하고 마음만 깨끗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 존재론을 지녔고, 풍수의 인간관 역시 여태까지 신령의 위력에 부립을 받거나 하늘이 정한 운명에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사상성에서 탈피하여 도리어 '신의 공력을 빼앗고 천명을 개척할 수 있다(奪神工開天命)'는 변혁적 사상성을 가진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풍수적 공간관은 기존의 왕도 경주를 중심으로한 불국토지리관과 靈地的 지리인식의 국지성과 관념성을 지양하고 국토의 지형지세를 전체적이

고 구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왕도 경주의 지리적인 편재성을 일깨웠고 지방도 풍수지리적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 공간론을 품고 있었다. 이에 각 선문에서는 종래 별로 중요시되지 않던 지방의 산들을 禪門의 基地로 선정하여 새로 주석한 곳을 삼한 제일의 승지로 자처하면서 각기 그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단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이리하여 각 선문은 그 지방에 있어서 지방문화의 중심지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최병헌, 1975, 140).

더욱이 도선은 비보사탑설이라는 공간적 이데올로기를 주창하여 주변부 지방이 중심지 왕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에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사상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도선은 신라 말의 당면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 백성들의 기근과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은 국토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국토 전체를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뜰과 침을 놓듯이 지방의 요소요소에 사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비보사탑설의 논리는 교종의 지리관념에 대한 선종계의 사상적 도전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찰의 실용성을 고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존에 靈地를 찾아 願刹을 짓던 당시의 관념이 이제 지세를 살펴 欠背處를 사탑으로 비보할 것으로 바뀌어 있으니, 이는 경주의 왕실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삼산·오악으로 개편한 종래의 편벽한 지리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고익진, 1985, 519). 이렇듯 도선의 비보설은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를 담고 있었기에 지방호족세력에 의해 수용되어 전환기의 사회변혁사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¹⁰⁾

결국 도선의 비보사상과 그 실천적 방책로서의 비보사탑설은 개성 송악의 호족인 왕건에게 전격적으로 수용되어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와 시대를 창출하는 공간적 정치이념으로 뒷받침되었고, 고려 태조 왕건은 그것을 중심(개성)과 주변(지방)을 통할하고 통합하는 국토 계획안의 이데올로기로 재해석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체계를 재편하고 운영하는 원리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4) 정치권력에 결탁된 풍수와 불교

고려시대에 걸쳐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지배세력의

주도하에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정치권력은 풍수와 불교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풍수와 불교는 정치지배세력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지배문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도선의 비보설에 준거하여 국토의 지역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도와 지방도시에 여러 비보사찰들을 배치하였으며, 후대의 고려 조정에서는 풍수와 불교를 결합시킨 의례로서 지리연기비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고려 조정에서는 풍수(地理業)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직을 승려에게 배정하여 담당하게 했고, 몇몇 승려들은 국가의 중요한 풍수적 입지결정에 참여하고 왕실이나 귀족들의 풍수도참적 자문도 하였다. 이렇게 전개된 고려시대의 풍수와 불교의 교섭 양상을 시기와 관련지어 나누면 전기의 비보사탑설 이행기와 후기의 지리연기비보 실행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왕조는 불교의 불력신앙과 풍수의 지력사상을 결합시킨 이데올로기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후에 비보사탑설에 기초하여 전국의 사찰들을 정비, 재편하였고, 비보설은 국토운영의 상위원리가 되어, 왕도인 개경을 보위하는 도성계획안이자 수도와 지방의 공간적 통합성을 이루고 왕권의 중앙적인 집중 및 지방 호족의 효율적인 통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다.¹¹⁾ 이에 도성계획안으로서 5大寺, 10大寺 등의 國家裨補所가 수도 개성에 설치되었고, 풍수상의 비보가 필요한 지점에 사찰이 배치하여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니 개성의 開國寺, 演福寺, 聖燈庵, 觀音窟 등은 그 대표적인 풍수사찰이었다(최원석, 2004, 121). 지방에서도 비보사찰은 지방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확산되었다. 태조 대의 山川順逆論을 참고하여 지정된 사찰에서 출발하여 각 행정단위의 邑基에서 중심 사찰이 정비되어 늘어나고, 국왕과 각 종파에서 공인 사찰로 등재하여 나중에는 모든 사찰이 나라와 州縣의 裨補所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한기문, 2006, 272).

그리고 고려 조정은 정치권력의 주도 하에 풍수와 불교의 의례를 결합한 地理延基裨補를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고려 중기의 49년(1232-1270)에 걸친 강화도읍지(江都) 시대에 잘 나타난다. 지리연기비보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선정된 특정 장소에 移宮 혹은 假闕을 축조하여 왕이 직접 일정시기를 머물거나 혹은 衣帶를 두어서 국운 혹은 基業의 연장을 꾀하는 비보책이다. 지리연기비보는 불교, 특히 밀교와 풍수지리설이 결합한 방식을 보였다(최원석, 2003, 78).¹²⁾

이렇듯 移宮과 假闕을 지점하여 특정 장소에 짓는 행위는 풍수지리설이 개입한 것이지만, 大佛頂五星道場 혹은 大日王道場을 차리거나 법화경을 강론하는 등의 행태는 불교사상에 기초한 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불정도량과 대일왕도량은 밀교적인 의례作法에 속하는데, 고려는 제불보살의 가호력과 위신력에 의하여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신앙적·정치적·군사적 의도에서 각종의 밀교 의궤가 성행하였던 것이다(서운길, 1994, 269-300).

5) 풍수와 불교 교섭의 역사적 쇠퇴

고려시대를 걸쳐 강고하였던 풍수와 불교의 결합 양상은 고려 말에 이르러 약해지기 시작하고 조선 초기를 넘어서는 제도권 부문에서 급격히 와해되어 결국에는 풍수와 불교가 각각 분리되기에 이르렀고 민간부문에서만 양자의 교섭이 미약하게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풍수와 불교는 사회적 추진력이 약화되어 지배문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비공식적이고 은폐적인 교섭 양상을 나타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 당면한 대내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불교와 풍수는 상호간에 교섭이 쇠퇴하였으며, 특히 조선조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역불 정책은 풍수와 불교의 교섭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선 왕조가 건국과 동시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것도 개성을 중심으로 설치된 기존의 비보사탑들이 축소 혹은 헐파되는 실제적 이유가 되었다.

고려의 비보사탑은 이미 11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과다한 창건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야기시켰고, 12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5세기 후반 조선의 성종 대를 지

나면서 사탑비보설은 급속히 쇠퇴하였으며,¹³⁾ 조선 儒臣들의 비보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져 도선의 비보설은 강력히 부정되었다. 이윽고 비보설은 조선조 이후 排佛 정책의 기조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지배로 말미암아 불교신앙적인 기능은 없어지고 풍수적인 기능 및 양식의 비보로 대체 되었으며 드디어 15세기 말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최원석, 2004, 123). 조선 초기까지 제도권 내에서 비보설을 근거로 하여 미약하게 명맥을 이어오던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이윽고 15세기 말에 이르러 막을 내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의 세력집단이 민간 속으로 들어가서 불교의 유지 존속을 위해 풍수를 방편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음성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민간에 풍수가 널리 확산, 전파되었으며, 名僧에 가탁한 수많은 도참서와 비결서 그리고 승려가 등장하는 풍수 설화 등의 文學書類들이 만들어졌다.¹⁴⁾

표 2. 문화요소별로 본 풍수와 불교의 교섭 결과

문화 요소	풍수와 불교의 교섭 결과
신앙사상	地力思想과 佛力信仰의 결합
미학	자연과 마음의 만남의 미학
이론(說)	佛家地理說, 비보사탑설
사찰터 택지법	풍수적 사찰터 택지법
사찰 입지	명당입지 · 비보입지
寺 · 塔 양식	風水寺(禪補寺) · 풍수탑(비보탑)
국토 계획	국토비보 및 비보사찰의 배치
의례	지리연기비보
담당자(전문가)	풍수승
문학	풍수승 관련 설화 및 秘記類

3. 풍수와 불교의 교섭으로 인한 상호 영향

1) 풍수의 도입 및 공간적 확산에 미친 불교의 영향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풍수의 도입 및 확산 과정은 종교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서 불

교·도교와 풍수의 긴밀한 관계는 풍수의 도입, 파급과 발전에 좋은 터전을 제공한 바 있으며, 풍수는 불교와 도교의 침투에 부수되어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입되기도 하였다(高友謙, 1992, 212, 214). 한국에서도 풍수의 확산과정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불교적 요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신라 하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걸쳐 불교라는 문화요소는 풍수를 공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당시에 불교지식인인 승려는 아울러 풍수지식인으로서 풍수의 확산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신라 하대 선종의 유포와 이를 주도한 주체인 선승들은 풍수를 호족세력과 지방사회에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한국에 풍수가 도입되는 것은 다양한 계통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전술하였듯이 일찍이 삼국시대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찰지 택지라는 실용적인 도구로 불교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짙고, 삼국시대 말기에는 왕실이나 국도 중심의 지배세력에 국한되지만 불교의 흥성에 비례하여 풍수지리설도 상당히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최병현, 1975, 129-130). 그런데 중앙왕족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왕도에 한정되어 이용되어 오던 풍수가 비로소 호족집단의 지방사회에 까지 널리 확산되는 계기는 나말려초 선승들의 활동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고려 왕조에서는 풍수와 불교가 결합된 도선의 비보설이 국토계획과 사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려시대를 걸쳐 전국적으로 산재한 비보사찰을 통하여 풍수가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려 조정이 승려에게 풍수 관직을 주고 풍수에 관련된 일을 담당케 하였으며, 주요한 풍수적 자문을 승려가 담당했다는 사실도 풍수의 확산에 미친 불교적 영향을 방증한다.¹⁵⁾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의 억압으로 야기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승려들은 서민 계층 속으로 파고 들어갔고, 승려들에 의해 풍수는 불교 전파의 한 방편으로 활용됨으로써 널리 민간 계층에 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사찰 입지 및 기능에 미친 풍수의 영향

풍수는 불교사찰의 입지 및 사찰터 선정의 방법, 불교문화의 내용과 사찰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사찰 택지 방법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면 후술하겠지만, 佛跡이 출현하거나 佛緣에 의한 장소의 선택(佛靈地 택지), 簡子를 던져 길흉 판단을 한 후 택지하는 占筮의 택지(簡子 택지), 풍수지리적인 입지론에 의거한 택지(풍수 택지)라는 세 유형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최원석, 2004, 201-220).¹⁶⁾ 다시 풍수적인 입지는 명당입지와 비보입지로 대별되는데, 비보적인 입지를 한 사찰은 국도 및 지방행정중심지를 풍수적으로 비보할 동기와 목적으로 터가 선택되고 입지하였기에 불교적인 사찰 고유의 기능과 비보적인 풍수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겸하였다. 한국에서 전개된 사찰 입지 선정의 역사적 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풍수적 영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불교 전래 이전부터 한국에는 산천이 수려한 땅에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靈地 관념). 그런데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땅은 과거 부처들과 인연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고(佛國土緣起說), 다시 화엄사상이 중국에서 수용되면서부터는 불보살이 우리의 산천에 깃들고 머무르고 있다고 여기면서(眞身常住說), 전통적인 교종계 사찰은 주로 이러한 佛靈地에 건립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익진, 1985, 227).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는 佛靈地의 사찰지 선택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사찰지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유형은 簡子로 점을 쳐서 택지하는 경우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832년 진표의 문도이자 팔공산 동화사의 중창조인 心地는 간자를 던져서 절터를 택지하였다.¹⁷⁾ 이러한 택지법은 사굴산 선문의 개산조인 梵日(810-889)에서도 나타나며, 범일은 간자를 이용해서 858년에 낙산사를 점정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볼 때 진표가 간자를 받았다는 740년을 시작으로, 心地와 梵日이 간자로 택지하고 있는 9세기 중반에 걸쳐서 간자를 이용한 사찰 택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풍수적인 사찰 택지 방법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도 이 무렵과 동시대이다. 구산선문의 선승도 간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방증되듯이, 신라 하대에는 간자와 풍수가 사찰의 입지선정 방법으로 혼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간자에서 차츰 풍수로 사찰택지 방법이 전환되는 시기로 추정된다.

풍수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도입되어 사찰의 입지 선정에 일찍이 이용되었더라도, 풍수적 사찰 택지 방법이 지방사회에까지 널리 적용되고 실천된 시기는 나말려초에 선종이 수용될 무렵으로 추정된다. 풍수는 기왕의 佛靈地 입지나 簡子를 이용한 占筮의 택지 방법과 같은 신비적이고 우연적인 택지 선정 과정과는 달리, 자연의 지형지세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거주지의 최적 입지를 가능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풍수지식을 습득하고 귀국한 유학승들에 의하여 사찰지 입지선정의 논리로서 널리 채택되었다. 이후 고려조의 비보사탑설 이데올로기의 성행은 불교사찰의 풍수적 입지를 크게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

풍수적으로 입지한 사찰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풍수적으로 명당지에 터를 선택하여 위치한 명당사찰과, 풍수적으로 결함이 있는 터에 중심지(취락)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배치한 비보사찰이다. 명당사찰은 풍수적 최적입지처에 터가 결정된 사찰로서, 주로 불교사찰 본래의 종교 및 수행 기능에 충실할 목적으로 선택된 사찰이다. 반면에 비보사찰은 주로 國域 및 도읍의 풍수적 입지보완을 목적으로 풍수적 欠缺處에 배치된 사찰로서, 성격상 불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풍수적 동기에서 조성되어 주로 풍수비보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풍수의 영향으로 불교 사찰의 입지경관과 사찰터 택지법에 변화가 생겼고, 사찰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기능 역시 비보사찰의 경우 불교적 기능에다 풍수비보적 기능을 겸하게 됨으로써 변용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한국의 역사상에서 풍수와 불교의 상호 교

섭이 언제 본격화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으며, 사회 및 풍수와 불교 상호 간에 미친 영향은 무엇 인지를 고찰한 것으로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사를 시기 구분하여 각 전개과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다른 학술적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나말려초의 시기에 풍수와 불교는 사회정치적 주도집단에 의해 비보사탑설로 형성되어 공간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선불교는 풍수의 지방 도입 및 확산에 기여하였고, 풍수는 사찰의 입지 경관 및 택지 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사회문화적 내용 및 기능에도 풍수적 요소가 부가되었음을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본문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풍수는 일찍부터 불교와 교섭하였으며, 한국으로의 불교 전래와 함께 수반되어 사찰지 선택에 적용되다가, 신라 하대에서 시작하여 고려 초에 와서는 지방사회에까지 널리 파급되었다. 특히 선불교 집단은 풍수와 불교의 교섭을 주도한 세력이 되었으며 그 결과 도선의 풍수비보설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창출되어 나말려초의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사상으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에 풍수와 불교는 상호 교섭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합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배타적이거나 상충되기 보다는 협조적이고 상승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와 불교가 지배문화의 지위를 가지면서 교섭되면서 국가와 사회계층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정치권력층은 풍수와 불교를 결합하여 지역체계를 재편하고 국토공간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도와 지방도시에 비보사찰을 배치하고, 왕조의 基業을 연장하기 위해 풍수와 불교의례를 결합한 지리연기비보 등을 실행하였다. 이렇듯 고려시대의 풍수와 불교는 지배층에 의해서 서로 공고하게 결합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는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되었고, 풍수와와의 교섭 정도도 쇠락하였다. 도선의 비보설은 조정의 儒臣들에 의해 극히 배척되어, 조선 초기까지 명맥이 이어지던 비보사상은 15세기 무렵에 힘을 잃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음

성적으로 진행되었으며, 名僧에 가탁한 도참서와 비결서, 설화 등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풍수와 불교는 제도권 내에서 교섭의 추진력을 상실한 채 비공식적이고 은폐적인 교섭 양상을 나타냈다.

이 논고는 풍수와 불교의 교섭 사실을 정치권력층 및 문화주도세력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민간부문에서 풍수와 불교가 어떻게 교섭되어 민중에 의해 활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탐구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

- 1) 劉沛林, 1995, 『風水-中國人的 環境觀』, 上海三聯書店, 259-261에 의하면, 중국의 불교건축은 풍수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풍수는 불교건축의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관련 사실이 있다.
- 2) 삼국시대 吳의 赤烏年間(239-250)부터 六朝의 陳에 이르기 까지 사이에 건립된 金陵 부근 일대의 490個寺의 寺誌를 모은 葛寅亮의 『金陵梵刹志』에 의하면 많은 사찰의 基地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선정되고 있었던 것이 各寺의 緣起說話에 나타나고 있다(최병현, 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려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30에서 재인용).
- 3)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 위엄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곤란하고 백성들이 환란에 빠져 있으니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야 하고, 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九韓이 와서 조공하며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며, 운수가 형통하고 三韓을 통일하리라”는 것이다. 같은 條에는, 文殊가 慈藏에게 하였다는 말 중에, “산천이 험악한 까닭에 人性이 추하고 비뚤어져 邪見을 많이 믿어서 간혹 天神이 화를 내리게 된다.”는 표현도 있다.
- 4) 『有唐新羅國初月山大嵩福寺碑銘並序』
- 5) 『三國遺事』卷第3, 法王禁殺.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 6) 鎌倉市史編纂委員會編, 1956, 『鎌倉市史』(史料編 第2), 192쪽. “塔頭事...於敷地者...見一知其地形, 爲山門風水無相違者...”. (渡邊欣雄, 2006, 일본풍수사: 과학과 점술의 역사, 『동아시아의 풍수』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움 별책본, 8에서 재인용).
- 8) 『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並序』
- 7) 중국의 강서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선종 사찰인 마조도일의

우민사·보봉사, 서당지장의 보화사, 백장회해의 백장사, 황벽회운의 황벽사, 운거도옹의 진여사, 조산본적의 조산사, 소산광인의 소산사 등은 모두 풍수적 입지를 하고 있다.

- 9) 선덕여왕은 내가 모년 모월 일에 죽을 터이니 나를 切利天 가운데에 묻으라고 했는데 군신은 그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狼山 남쪽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도리천과 낭산 남쪽의 대응 사실이 드러나는데, 도리천은 불교적인 우주관에서 欲界 6天的 第2天으로서 南瞻部洲 위에 8만 유순 되는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 선덕여왕릉 위치가 도리천이라면 낭산 전체는 須彌山(Sumeru-parvata)이 되는 셈이다. 수미산은 불교적 宇宙山으로서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있고 중턱에는 四王天의 住處가 있다. 그런데 선덕왕을 장사지내고 10년 만에(679년) 문무왕이 四天王寺를 왕릉 아래에 건립하였는데, 四天王은 須彌의 國土인 四州를 수호하는 신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그 住處는 수미산의 중턱에 있다. 사천왕사의 건립 사실은 공간적으로 사왕천과 낭산의 왕릉 아래를 동일시한 것이다. 이처럼 신라 왕실은 낭산=수미산, 도리천=낭산 꼭대기(선덕왕릉지), 사왕천=낭산 중턱(사천왕사지)로 일체화시켰으니 당시 왕실은 불교정도의 공간모델을 가지고 경주의 땅에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 10) 안동의 법흥사, 법림사, 임하사 등과 남원의 선원사, 대복사, 순천의 향림사, 도선암, 화순의 운주사와 삼암사(광양 운암사·승주 선암사·진주 용암사) 등은 대표적인 고을의 비보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11) 태조의 「훈요십조」(943)에도 그 첫 번째는 불교의 호국적 관념이, 두 번째는 비보사찰적인 인식이 보인다. 「훈요십조」의 둘째 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선의 비보설은 사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근거로서 이용되었다.
- 12) 『高麗史』卷123, 列傳36 白勝賢, 『高麗史』卷24, 世家24 高宗46년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
- 13) 12세기 말에는 「道誥密記」에 기록된 사찰 이외에는 寺社 田과 柴地를 지급하지 않았고, 태종 2년에 비보사찰이라도 常住僧 1백 명 以下로 「道誥密記」에 있지 않는 사찰은 혁파할 것을 상언하고 있고, 태종 6년(1406)에 이르면, 「道誥密記」에 소속된 사찰이라도 田地와 奴婢를 新都의 各寺로 옮기게 조치하였다. 이어 태종 8년에는 비보사찰의 노비수를 30구로 대폭 축소하였고, 조선의 성종대를 지나면서 도선의 사탑비보설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成宗實錄」 16年 1月 8日조에 의하면, “지금 도선이 비보했던 시설이 허물어지고 철거되어 거의 다하였다”는 말에서나, 당시 도선의 비보술을 장려하자는 내용으로 상소한 최호원이 유신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배되고 마는 조정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 준다.
- 14) 『鄭鑑錄』에 나타난 것으로서 승려에 假託한 비결만 하더라도, 道誥(827-898)의 「道誥秘訣」·「玉龍秘訣」·「玉龍子十

勝地秘訣」·「玉龍訣」·「玉龍子記」 등과, 義湘(625-702)에 가탁한 「浪仙訣」 중의 「義湘大師曰」, 중국 唐 玄宗代(712-756)의 승려인 一行의 「一行訣」·「一行師說」, 無學(1327-1405)의 「無學傳」, 西山大師(1520-1604)의 「西山大師秘訣」 등이 있다(아세아문화사, 1973, 『鄭鑑錄集成』). 그밖에도 車天輅(1556-1615)의 「五山說林」에는 義湘의 「山水秘記」를 소개하였다.

- 15) 승려 출신으로 풍수적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사람들은 海宗 朝의 專知地理師 聰訓, 慶甫, 공민왕에게 한양천도를 권한 普雨, 인조 조에 서경 천도를 도모한 妙淸, 공민왕 조에 충주 천도 및 三蘇巡駐說을 제창한 辛晫, 여말선초의 무학 등이 있다(이몽일, 1991, 『한국풍수사상사연구』, 日駟社, 119).
- 16) 사찰터 擇地法에 미친 풍수의 영향에 대한 이하 내용은 최원석, 2004, “사찰입지 선정의 역사적 경향과 비보사찰,” 불교문화연구 제4집, 201-220을 요약한 것임.
- 17) 『삼국유사』 「심지계조」의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땅을 택하여 신성한 간자를 봉안하려 하는데 우리가 지정할 수 없으니, 세 君과 함께 높은 데 올라 간자를 던져 점치자하고 신들과 더불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쪽으로 향하여 던지니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그곳에다 堂을 짓고 안치하였으니, 지금 동화사 첨당 북쪽에 있는 小井이 바로 이곳이다.”
- 18) 『三國遺事』 「낙산 이대성 관음·정취조신」

참고문헌

- 고익진, 1985,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서울.
- 서윤길, 1994, 한국밀교사상사 연구, 불광출판사, 서울.
- 이몽일, 1991, 한국풍수사상사연구, 日駟社, 대구.
- 조성호·성동환, 2000, “신라말 구산선문 사찰의 입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 53-81.
- 최병현, 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려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101-146.
- 최원석, 2003, “裨補에 관한 문화지리학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15(1), 77-98.
- 최원석, 2004, “사찰입지 선정의 역사적 경향과 비보사찰,” 불교문화연구, 4, 201-220.
- 최원석, 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서울.
- 한기문, 2006,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55-292.
- 高麗史, 鄭麟趾 等 撰, 國立中央圖書館(2002).

최원석

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竝序, 崔惟清, 東文選 (1478).

三國遺事, 一然, 國立中央圖書館(2005).

成宗實錄, 實錄廳 編, 國史編纂委員會(1959).

有唐新羅國初月山大嵩福寺碑銘竝序, 崔致遠, 海雲碑銘註 (1881).

鄭鑑錄集成,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

渡邊欣雄, 2006, “일본풍수사: 과학과 점술의 역사,” 동아 시아의 풍수,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별쇄본.

西村惠信, 2006, “일본 간화선의 전통과 변용,” 보조사상, 25, 105-152.

高友謙, 1992, 中國風水, 中國華僑出版公司.

劉沛林, 1995, 風水-中國人的環境觀, 上海三聯書店.

何曉昕·羅雋, 1995, 『風水史』, 上海文藝出版社.

Hong-key Yoon, 2006,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Lexington Books, New York.

교신: 최원석,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관 305호 (이메일 :
wschoe@empal.com, 전화: 055-751-5177)

Correspondence: Won Suk Choi, 305, Nam-myeong Hak
Gwan, Gyeongsang National Uni. Gajwa-dong, Jinju-
si, Gyeongsangnam-do, 660-701, Korea(e-mail:
wschoe@empal.com, phone: +82-55-751-5177)

최초투고일 09. 02. 11

수정일 09. 03. 03

최종접수일 09. 03. 12